

la prairie
SWITZERLAND

WHITE CAVIAR
CRÈME EXTRAORDINAIRE



환하게 차오르는 빛의 향연

La Prairie에서 얼굴 전체를 영롱한 광채로 채워주는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출시한다. 라프레리의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연구 끝에, 가장 강력한 단일 일루미네이팅 분자를 개발하여, 칙칙하거나 색소가 침착된 부위에 집중 작용하는 크림이 탄생하였다. 결점 없는 광채 피부를 추구하는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크림은 놀라운 효과의 최고급 스킨케어 경험을 선사하는 라프레리의 지속적인 열정이 맺은 결실이기도 하다. 사용 후 2주부터 눈에 보이는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4주 안에는 확연히 눈에 띄게 빛나는 피부를, 8주 안에는 빛을 가득 채운 듯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라프레리는 빛의 힘을 강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 즉 피사체를 강조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예술가들과 같이 피사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한층 더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특별한 포물라를 완성하였다. 라프레리는 “빛을 포착하고 빛의 움직임을 담아낸다”고 밝힌 사진의 아버지,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의 말처럼 피사체를 환하게 밝혀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아름다운 광채로 주변을 가득 채워준다.

대담한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라프레리는 빛의 과학이라는 최신 혁신 기술을 이용하여 화려한 빛의 광채를 이끌어낸다.



엑스트라오디네어 일루미네이팅 분자

라프레리의 과학자들은 가장 강력한 브라이팅 효과를 지닌 단일 활성물질을 찾기 위해 50,000개의 성분을 선별 검사하는 등 수년간 연구에 몰두한 끝에 마침내 루미도스(Lumidose)를 발견하였다. 라프레리가 특허를 받은 이 혁신적인 분자는 피부를 칙칙하게 만드는 멜라닌 억제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주요 효소로서 멜라닌 생성에 관여한다. 라프레리에서 선별 검사를 진행한 모든 성분 중 특히 루미도스는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50% 억제하는 가장 낮은 IC50 값을 가지고 있어, 현재 티로시나아제를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제로 알려져 있다. 루미도스는 멜라닌 형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피부색을 한층 더 균일하게 가꿔주는 역할을 한다.

강렬한 빛이 비추면 그늘과 그림자가 사라지듯이 칙칙한 피부를 화사하게 가꿔준다.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크림에 함유되어 있는 루미도스는 칙칙한 안색과 피부를 환하게 밝혀준다.



광채 그 이상의 효과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크림은 빛이 지닌 힘을 이끌어내는 브라이팅 효과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최적화된 루미도스 농도의 포물라가 색소 침착의 원인에 집중 작용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루미네이팅 효과를 이끌어낸다. 루미도스는 멜라닌 생성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하여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꿔주는 라프레리의 강력한 브라이팅 전달 시스템, 스마트 크리스탈 화이트와 함께 작용한다.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에서만 사용되는 진귀한 골든 캐비아 추출물이 피부 탄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크림은 최첨단 생명공학 연구를 통한 라프레리의 익스클루시브 셀룰러 컴플렉스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부미용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세포에 활력과 생기를 더해주며, 칙칙한 피부를 환하게 밝히고 결점이 사라진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준다.



탁월한 디자인

화이트 캐비아 엑스트라오디네어 크림의 은색 패키지는 진주빛 원통형의 패키지로 이루어져 라인과 컬렉션 이름에서 연상되는 캐비아 비즈를 떠오르게 하는 입체적인 링의 조화를 통해 제품이 지니고 있는 강력한 빛의 힘을 표현한다. 주얼리 상자와의 같은 화려한 은색 캡을 여는 순간, 빛이 반사되어 무지갯빛 광채가 퍼져 나가는 황홀한 광경이 펼쳐진다. 슬림한 밑부분의 버튼을 누르면 혁신적인 에어리스 타입의 펌프가 작동하여 탁월한 광채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적당량의 화이트 크림을 분사한다.



화이트 캐비아 사용 방법

아침과 저녁, 세안을 마친 피부에 사용한다. 화사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첫 단계인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클래리파잉 로션을 바른 다음 칙칙한 눈가를 환하게 밝히고 잔주름을 가려주는 활성성분이 함유된 화이트 캐비아 아이 세럼을 바른다. 그리고 세럼인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펄 인퓨전을 발라 3중 빛의 장막으로 화사하게 빛나는 윤기 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이제 눈가에 화이트 캐비아 일루미네이팅 아이 크림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듯 발라 연약한 눈가를 촉촉한 수분으로 가득 채우고, 마지막으로 화이트 캐비아 크림을 적당량 펴핑하여 눈가를 제외한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준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려면 쉐루라 스위스 UV 프로텍션 베일 SPF 50을 아침과 저녁, 그리고 하루 종일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발라준다.

화이트 캐비아 컬렉션은 탁월한 브라이트닝 및 퍼밍 효과를 발휘하여 화사한 광채를 가득 머금은 생기 넘치는 동안 피부를 선사한다.

